

중국 한약업체 한약상, 국내 진출 임박 국산약재 품질면에서도 도전받게 될 것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중국 유수의 한약제조업체와 한약상이 올해안으로 국내에 진출할 예정이어서 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한약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 텐진(天津)에 있는 중국 최대의 한약제조업체인 텐시리(天士力)는 삼천당 제약과 수입판매원 계약을 맺고 6월부터 한약제제를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협심증을 비롯한 순환기질환 치료용 한약제제로 우선 국내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회사는 홍콩과 러시아, 유럽, 미국, 남아공, 베트남, 호주 등에 이미 진출한 세계적인 한약제조업체”라며 “삼천당 제약도 현재 진행중인 당뇨치료제와 간질환치료제 개발이 끝나는 대로 이 회사를 통해 중국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베이징(北京)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 한약상인 통련탕(同仁堂)은 국내의 한 대형약국과 51대49비율로 합작법인을 설립, 연내에 5개 분점을 넣 예정이다.

이 회사는 850여종의 한약재 뿐만 아니라 장백산 장뇌 등 희귀 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고 조선족 한의사들이 국내에서 체질처방

및 복약지도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국이 6월부터 한약재배품질관리 규정(GAP)을 적용, 한약 고품질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한약재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산 한약재는 앞으로 품질 면에서도 도전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재 진위 감별도감 발간

식약청, 20002년 용역사업 공모

한약재 진위 감별 도감이 마련된다.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도감을 발간하여 불량·부정 한약재 유통을 방지하고 한약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것.

식약청 업무처리의 국제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선진

국과 비교·평가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약 품관련규정 영문판도 제정된다.

그밖에 생명공학의약품 품질평가 및 규격기준의 국제조화와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안) 개발, 방사성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 등도 시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성이 2002년 용역연구개발사업 8개 과제를 공고했다. 식품의약품 생약 생물학제제 의료기기 분야의 효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기초·응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 확보를 기한다는 목적이다.

문의:식약청 용역연구 개발사업 담당자, 380-1538

약초마을 조성

용인 원삼면 학일리에

경기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에 약초와 꽃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테마마을이 조성된다.

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학일리가 첫번째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학일마을에는 2004년까지 약초단지와 농산물 생산단지가 조성되고 공공기반시설, 전통문화체험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들 시설이 완비될 경우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농사체험,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고 주민들은 쾌적한 자연환경, 생태공간 등을 관광상품화해 소득증대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재도 인터넷쇼핑 시대 한방관련 지식정보 제공

질 좋은 제천 한약재를 인터넷을 통해 살 수 있게 됐다.

충북 제천시 약초영농조합법인(대표 김정기)은 제천 한약재 소핑몰인 ‘건강 114 닷컴’(www.gungang 114.com)을 개설, 인터넷 판매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곳에서는 순수 국산 한약재와 수입 한약재 등 200여 가지와 한약재를 가공한 향기주머니 등을 판매하고 농사백서, 한방상식, 건강칼럼, 한방백과, 약재별 시세 등 한방 및 한약재와 관련된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비자와 실시간 대화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앞으로는 화상카메라를 활용해 한약사와 상담하는 ‘화상진료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입 방법은 소핑몰에 접속, 주문한 뒤 무통장 입금 또는

카드 결재를 하면 택배로 우송된다. 조합측은 “올해 저온저장고와 가공기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한약재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저장기간 2배연장 ‘천연항균제’ 개발

농산물의 저장기간을 2배 이상 연장할 수 있는 무공해·무독성 천연항균제가 개발됐다.

대구대 생물공학과 강선철 교수는 17일 “국내에서 자생하는 향나무·대나무·소나무 등의 잎에서 열매채소류 부패균에 대해 항균력을 높이는 성분을 추출, 이를 천연항균제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된 항균제를 포도와 딸기 등에 뿌린 후 중량 감소율, 총균수, 색도 등을 측정한 결과 저장기간이 2배 이상 연장됐다고 소개했다.

대구·경북 한방바이오밸트 형성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키로

대구와 경북 상주를 잇는 한방바이오밸트가 형성된다. 경북도는 풍기 등 북부지역 특화작물인 한약재, 약초의 청정재배와 고급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주시 일대 10만여 평에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여기에는 우선 전통약초마을, 한약재 재배 등 체험이 가능한 생태학습장, 자연사, 과학박물관이 들어선다.

일본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헬스투어 코스를 도입하고 민자를 유치해 각종 관광, 휴양, 레포츠시설을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도가 생산, 연구, 교육, 관광에 주안점을 두는데 반해 대규모 한약도매시장인 약령시가 있는 대구시는 도와 연계해 한약의 유통, 가공을 위한 한약관련 벤처단지인 ‘한방바이오밸리’를 조성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단지 규모는 초기에 대구도심에 3만평 정도로 시작해 앞으로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에 따라 면적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시는 취약한 재정을 고려해 일부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선분양·후보상 방식으로 시비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생약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조성원가 이하의 분양가로이 곳에 집중 입주시키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바이오 전용 펀드를 조성해 자금도 공급키로 했다.

시는 또 기업체 연구소 등 우수 바이오 연구시설을 끌어와 입주업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서울대 천연물연구소, 식약청 등 각종 한약재 규격 인증기관들도 대거 유치해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한약재 목욕탕, 시립한방병원 등 체험시설 위주의 건강테마파크를 민자유치로 건립하고 한의약박물관 등 부대시설도 대거 설립해 관광산업과 연계도 모색키로 했다.

LG홈쇼핑 협력업체 구속, 일파만파 중국산 재료 한약 국산으로 속여 판매

LG홈쇼핑과 수년간 거래해 온 밀양시 식품업체 ‘명세당’이 중국산 재료를 넣은 한약을 순수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부당광고를 한 TV홈쇼핑업체에 제재를 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전체 TV홈쇼핑 사업자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박충근)은 지난달 15일 중국산 한약재를 섞은 건강보조식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온 명세당의 대표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 탈세혐의로 구속했다.

명세당은 부재료로 오미자, 구기자, 흥화씨 등을 중국에서 수입해 제조한 건강보조식품만으로 13만여상자에 7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 중 LG홈쇼핑에서 지난 한해 동안 6억9000만원어치를 팔았다. LG홈쇼핑 관계자는 “명세당이 처음에는 순수 국산으로 제조하다 수출물량이 늘면서 재료가 부족해 지난해부터 일부 상품

에 부재료를 중국산으로 넣은 것 같다”며 “LG홈쇼핑 사업부에서 이 사실을 감지하고 지난 2월부터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허위광고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확정판결이 나오는대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과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년간 우리와 함께 성장해 온 회사가 이런 일을 당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명세당이 LG홈쇼핑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제품은 흑염소, 자라골드, 총명액 등 3가지로 이 중 문제가 된 부재료는 약 1% 정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세당은 농수산부로부터 우수농수산물가공업체로 지정되고 연간 100억원대의 매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로로 회사 대표가 ‘밀양시 신지식인 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밀양시 납세액 1위 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세무 관련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가세와 법인세 등 3억5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용인시 원삼면 학일리에 약초와 꽃이 어우러진 환경친화적 테마마을이 조성된다.

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학일리가 첫번째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학일마을에는 2004년까지 약초단지와 농산물 생산단지가 조성되고 공공기반시설, 전통문화체험 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이들 시설이 완비될 경우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여가 선용과 농사체험,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고 주민들은 쾌적한 자연환경, 생태공간 등을 관광상품화해 소득증대 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